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6. 7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장구중, 사무관 홍철, 주무관 김재형 • ☎ (044) 201-5082, 5081
	교통정책조정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강주엽, 서기관 나민희, 주무관 윤현식 • ☎ (044) 201-3804, 3792
보 도 일 시		2019년 6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수도권 광역버스,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!

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버스 마일리지 적립한도 상향 ... 월 2만원대 교통비 절감

-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와 M버스*(이하 광역버스)는 기본 요금이 2,000원~2,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.

* 여객법상 빨간버스는 직행좌석형, M버스는 광역급행형을 의미

-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광역알뜰교통카드(이하 알뜰카드)를 사용하여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, 보행·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 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

- 기본요금이 2,000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을 250원→300원으로 상향하고, 월 적립상한도 11,000원→13,200원(44회 이용 기준)으로 조정*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가 보다 높아진다.

* 광역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월 11,000원~13,200원의 마일리지 적립

-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*을 더하면 월간 총 2만원대 이상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다.

* 전월 사용실적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: 체크(2~7천원)·신용카드(1~4만원)

- 이번 변경사항은 수도권이 아닌 곳*의 광역버스에서도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.

* (대전 1001번의 경우) 대전→세종·세종→오송(2,000원) 또는 대전-오송(2,300원) 이용 시 적용

○ 전국 광역버스의 약 90%가 운행 중인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에서 5천명의 체험단도 추가로 모집한다.

* ('19.1월 기준) 직행좌석형의 86%(216개/총 252개 노선) 및 광역급행형 100% (30개/총 30개 노선) 등 87%가 수도권에서 운행 중(246개/총 282개 노선)

- 알뜰카드 누리집(홈페이지)*의 '수도권 체험단 추가 모집'에서 신청하면 되며,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다.(선착순으로 모집하며, 6월 10일부터 신청 가능)

* '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이리지' 검색 또는 <http://alcard.kr> 접속

- 전국 확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(11개, 4월 선정)인 수원,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의 '체험단 신청'에서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.(이미 신청한 경우 재신청 안해도됨)

* 5개 광역(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) 및 6개 기초(수원, 청주, 전주, 포항, 영주, 양산)

□ 국토교통부 안석환 광역교통정책국장은 “광역버스 마이리지 상향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,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면밀히 준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홍철 사무관(☎ 044-201-50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